

第1章 서론

본 논문은 末廣鐵腸(수에히로 텃초우, 1849~1896)¹⁾가 創作한 <雪中梅>와 이 작품을 翻案한 具然學의 <雪中梅>에 대해서 그 小說史的인 位相, 構成, 文體, 人物, 政治思想 등을 比較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原作 <雪中梅>는 末廣鐵腸의 創作으로, 上篇이 1886년 8월에 그리고 下篇이 1886년 11월에 각각 博文堂(하꾸분도우)에서 單行本으로 출판되었다. 한편 翻案作 <雪中梅>는 原作을 具然學이 翻案한 것이며, 1908년 5월에 滙東書館에서 單行本으로 출판되었다. 이것은 한때 李人植의 창작소설로서 취급되었으나, 末廣鐵腸가 創作한 <雪中梅>를 具然學이 翻案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²⁾

原作 <雪中梅>는 國會를 開設할 것이 결정된 1880년과 실제로 國會가 열린 1890년의 中間인 1885년으로 時代가 설정되어 있다. 인물이 움직이는 空間은 모두 日本 國內이며 中心人物인 國野基(쿠니노 모또이)와 富永春(토미나가 하루)는 각각 시골에서 東京으로 이사를 온다. 國野基는 正義社라는 政治團體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다. 그는 公會堂에서 政治演說도 하고 오해를 받아서 監獄살이도 하고 女官에서 동지들과 政治討論도 한다. 한편 富永春는 富者의 無男獨女이며 일찍 兩親을 여의고 옛날에 약혼한 남자를 기다리기 시작한다. 그 동안에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結말에 가서 그 남자와 結婚하게 된다. 그 억울한 일이라는 것은 세 명의 인물이 가짜 遺言狀과 新聞記事로 인해서 富永春를 다른 남자와 結婚하게 하려고 모략을 피하는 것을 가리킨다.

具然學이 翻案한 <雪中梅>는 獨立協會의 第二段階로부터 第四段階에 이르는 時期, 즉 1897년부터 1898년에 걸친 時期로 설정되어 있다. 인물이 움직이는 空間은 모두 韓國 國內이며 中心人物인 리태순과 장매선은 각각 시골에서 京城으로 이사를 온다. 리태순은 獨立協會라는 政治團體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다. 그는 公會堂에서 政治演說도 하고 오해를 받아서 監獄살이도 하고 女官에서 동지들과 政治討論도 한다. 한편 장매선은 富者의 無男獨女이며 일찍 兩親을 여의고 옛날에 약혼한 남자를 찾아다니기 시작한다. 그 동안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結말에 가서 그 남자와 結婚하게 된다. 그 억울한 일이라는 것은 세 명의 인물이 가짜 遺言狀과 新聞記事로 인해서 장매선을 다른 남자와 結婚하게 하려고 모략을 피하는 것을 가리킨다.

1> 本稿에서는 日本人의 이름은 日本語로 읽기로 한다.

2> 全光鏞, '新小說研究① 雪中梅', 『思想界』(1955. 10), p.263~p.266

그 동안 翻案作 <雪中梅>에 대한 研究는 여러 方面에서 이루어졌지만 그 不明瞭性을 비판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우선 1908년에 출판되어 ‘新小説’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이유로 작품에 나타난 개화사상에 많은 研究者들이 관심을 쏟았다. 등장인물의 대화 속에 나타난 新女性像, 監獄의 改良, 演戲의 改良, 結婚制度的 改良 등이 크게 주목되었다. 이런 사상들은 비록 개화사상이기는 하지만 작품 속에서 ‘實踐에 옮겨진 바가 없고, 이론적인 論爭을 爲主로하여 主觀의 表白에 끝인 점이 作品의 實感을 弱화시키고 있’³⁾다.

그 다음에 논자의 주목을 끈 것은 作品의 主題를 이루는 政治思想이었다. 原作의 自由民權運動이 翻案作에서는 獨立協會運動으로 代置되었다. 그러나 具然學의 翻案態度에서는 ‘외세침입에 대한 저항, 생명재산을 위한 자유권운동, 지회조직을 통한 민중결속운동 등을 구체적인 배경으로 하여 소설상에서 그것들을 표현·창조하려는 성실한 노력이나 뚜렷한 정신을 찾아볼 수 없’⁴⁾고 작품 전체로서는 ‘정치개량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이나 명료한 의지를 찾아볼 수 없’⁵⁾는 것이 되었다.

翻案作 <雪中梅>의 결말에 대해서는 ‘이 결혼이야말로 작가의 욕망에 따른 기대에 불과한 것이며, ‘태순’의 성격과 행동, 그리고 사상의 정치적 성격을 총합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감동을 얻기가 어렵게 된다’⁶⁾는 지적이나 ‘제기된 문제와 갈등은, 작품에서 주체적 형상화를 거치지 않은 채, 남녀 주인공이 결혼하게 되는 대단원을 통하여 흐지부지 해소되어 버리고 만다’⁷⁾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지적은 모두 <雪中梅>에 나타나는 갈등이 政治에 대한 갈등뿐이라는 것을 前提로 하고 있다. 그러나 <雪中梅>에 나타나는 갈등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政治改良을 하고 싶으나 돈과 힘이 없어서 못하는 男子主人公의 갈등이고, 또 하나는 父親이 정해 준 약혼자를 더 기다려야 할지 다른 사람과 結婚하는 것이 좋을지 망설이는 女子主人公의 갈등이다. 翻案作에서는 여자(장매선)의 갈등은 해소되고 남자(리태순)의 갈등은 작자에게서 무시당한다. 그러므로 위의 두 가지의 지적처럼 政治에 대한 갈등이 結婚로 끝났다고 보는 것은 장매선의 갈등을 망각함으로 인한 혼란이다.

新小説 <雪中梅>는 翻案小説이기 때문에 具然學의 翻案態度 또한 연구대상

3> 全光鏞, 앞의 논문, p.258

4> 愼根緯, ‘『雪中梅』에 담긴 近代意識’, 『韓日近代文學의 比較研究』(一潮閣, 1995), p.33

5> 愼根緯, 위의 논문, p.33

6> 柳基龍, ‘具然學의 <雪中梅>, 그 작품적 특질’; 申東旭 편, 『新文學과 시대의식』

(새문사, 1981) p.I-81

7> 愼根緯, 위의 논문, p.43

이 되어 왔다. ‘번안문은 사건의 전개에만 치중하고 있을 뿐, 살아있는 인물을 묘사하고, 그것을 새롭게 창조해 보이는 노력에는 소홀함을 드러내고 있다.’⁸⁾ 사건의 전개만을 배끼려고 ‘拔萃翻譯을 해 놓은 관계로 번안작이 원작의 길이 보다 훨씬 짧게 되어 있다.’⁹⁾ 삭제되지 않고 번역된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 ‘당시의 우리나라 下流 客主집에서 손님에게 茶를 勸하는 習俗이 있었을상 싫지 않은데, 客主집 下女 또는 손님끼리 茶를 勸하는 場面이 數三處 나타나는等 若干의 모순이 露呈’¹⁰⁾되어 있다.

以上과 같은 研究史의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의 <雪中梅> 연구에서는 政治思想이나 개화의식과 같은 作品 外的인 요소와 작품을 관련시키는 데에 힘쓰는 논문이 많았다. 한편 서술방법이나 작품구성이나 주제의식과 같은 作品 內的인 요소의 비교를 시도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雪中梅>의 作品 內的인 요소를 비교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原作과 그 翻譯作의 對比研究를 할 때에 가장 먼저 요청되는 것은 原作이 쓰인 배경과 그것이 翻譯된 배경을 알아보는 작업이다. 原作은 1886년에 출판된 政治小說이므로 그 당시의 小說觀 및 政治小說의 성격을 밝혀야 한다. 한편 翻譯作은 1908년에 출판된 翻譯小說이므로 그 당시의 小說觀 및 外國文學이 많이 翻譯된 배경을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原作과 翻譯作의 小說史的 位相이 決定된다.

小說史的 位相을 살핀 다음에 필요한 것은 소설 전체의 構造上的 차이를 발견하고 분석하는 작업이다. 우선 時代設定이나 作品의 本文 위에 있는 脚注에 주목해서 그것들이 가지는 意義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表現技巧나 描寫와 같은 文體를 비교해서 原作者와 翻譯者의 서술태도의 차이를 浮刻시켜야 한다.

原作과 翻譯作의 作品主題도 重要的 比較對象이 된다. 主題를 비교할 때에는 原作과 翻譯作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이야기의 차이로 인해서 인물 형상화의 양상이나 작품 중에 나타나는 사상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제시하는 데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原作과 翻譯作이라는 두 가지 작품 자체를 비교하는 연구는 위에 적은 바와 같이 그 小說史的 位相과 構造와 主題를 각각 대비시키는 작업으로 인해서 완성된다. 이 연구의 구체적 進行順序는 다음과 같다.

8> 慎根緯, 앞의 논문, p.37~p.38

9> 慎根緯, 앞의 논문, p.37

10> 全光鏞, 앞의 논문, p.263

第2章에서는 韓日 兩國에 있어서의 <雪中梅>의 小說史的 位相을 비교하고자 한다. 原作이 出版된 1886년 당시의 日本文壇의 상황과 翻案作이 出版된 1908년 당시의 韓國文壇의 상황을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서 原作이 ‘創作’된 배경과 翻案作이 ‘翻案’된 배경을 밝힌다.

第3章에서는 <雪中梅>의 構成과 主題意識을 비교하고자 한다. 第3章-1에서는 판본 비교를 통해서 드러나는 두드러진 차이를 지적하고 第3章-2에서는 도처에 나타나는 小說構成의 차이를 지적하고 第3章-3에서는 文體를 비교하고 第3章-4에서는 人物을 비교하고 그리고 第3章-5에서는 政治思想을 비교한다.

第2章 <雪中梅>의 원작과 번안

1. 명치시대의 일본문단과 정치소설 <雪中梅>

原作 <雪中梅>의 梗概는 다음과 같다.

어떤 노파가 폐병에 걸려서 누워 있다. 그 노파의 남편은 이미 죽었고 이제는 가족으로서는 春(하루)라는 딸 한 사람만 남아 있다. 春(하루)에게는 父親이 정해 놓은 深谷梅二郎(후까야 우메지로우)라는 약혼자가 있는데, 지금은 완전히 종적을 감추고 말았다. 春(하루)의 母親은 春(하루)에게 자신이 죽은 후에도 계속 深谷梅二郎를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 結婚할 것인지를 묻는다. 그때 春(하루)는 영어학교에 다니면서 二~三年은 深谷梅二郎를 기다려 보고 그래도 그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叔父인 藤井權兵衛(후지이 고펜에)와 상의해 보겠다고 대답한다.

深谷梅二郎는 本名을 國野基(쿠니노 모또이)라고 한다. 하숙집에서 번역을 하면서 생계를 꾸리고 있으나 正義社라는 政治團體에 몸담고 있기도 하고 정권을 담당할 만한 정당을 조직해서 國會가 개설될 1890년을 맞는 것이 꿈이다. 어느 날 井生村樓(이부무라로우)에서 ‘社會는 旅行길을 가는 것과 같다’는 제목의 政治演說을 하는데, 크게 호평을 산다. 그런 國野基의 방에 어느 날 須田蠅之助(수다 하에노수께)가 놀러 온다. 그는 政治改良을 하는 데에는 過激한 수단을 써야 된다고 主張하지만 國野基는 政治는 여론의 힘으로 改良해야 된다고 反駁해서 두 사람의 의견이 대립된다. 須田蠅之助가 나가자마자 이번에는 그 하숙집의 主人인 吝藏(린조우)가 방값을 재촉하러 들어온다. 國野基는 당장 낼 돈이 없어서 황당해한다. 마침 그때 松(마쓰)라는 下女가 國野基에게로 한 통의 편지를 가져온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無名氏로 되어 있는데 안에는 三十엔이 들어 있다. 國野基는 의아해하면서도 그 돈으로 방값을 치른다. 그 후 國野基는 편지에 잘못 쓴 글자가 禍根이 되어서 두 달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된다. 낯선 사람이 가져온 差入品 속에 있었던 손수건을 잘못해서 쓰기 전에 물에 적서 버렸는데, 그때 손수건 위에 明礬으로 써 놓은 激勵文이 나타난다. 감옥 생활 때문에 기가 죽었었던 國野基는 그 문장을 읽고 다시 의지를 굳게 가진다.

國野基는 釋放되자마자 箱根湯本(하꼬네유모또)에 여행을 간다. 그때 아래층에서 거문고를 타면서 노래 부르는 소녀의 목소리가 들려 온다. 國野基는 여행

의 우울함을 달래려고 下女에게 부탁해서 그 소녀를 자신의 방에 오게 한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실은 그 소녀가 國野基에게 三十엔을 보내 준 사람이고 明礬으로 激勵文을 쓴 손수건을 보내 준 사람임이 판명된다. 國野基는 이때부터 이 소녀를 恩人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이 소녀가 다름이 아닌 富永春(토미나가 하루)이다.

富永春(토미나가 하루)의 叔父인 藤井權兵衛(후지이 고펜베)는 五百엔의 빚을 갚지 못해서 法律事務를 하는 河岸萍水(카와기시 효우수이)에게로 상담을 하러 간다. 河岸萍水는 전부터 富永春를 結婚 상대자로서 찍어 놓았기 때문에 藤井權兵衛에게 그녀와 結婚하게 해 준다면 千엔을 주겠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묻는다. 藤井權兵衛는 그것을 승락한다. 그때부터 富永春는 그들로부터 온갖 번거로움을 당하게 된다.

國野基는 箱根湯本(하코네유모토)에서 木賀(키가)에 이동하는 도중에 正義社의 同僚인 武田猛(타케다 타케시)를 만난다. 둘이서 그 근처에 있는 여관에 가는데, 거기서 田村(타무라), 島田(시마다)라는 두 명의 政治活動家를 만난다. 그리고 그 여관에서 넷이서 지방의회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을 한다. 富永春는 어느 날 國野基의 방을 찾아가서 河岸萍水와 結婚을 하라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시달림을 받고 있다고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國野基와 약혼을 했다는 거짓말을 藤井權兵衛에게 말해도 되느냐고 묻는다. 國野基는 그것을 승락한다. 며칠 후 이번에는 國野基가 富永春의 방을 찾아가고, 거기에 놓여 있었던 몇 장의 사진을 둘이서 보고 있는데 國野基가 옛날에 찍은 사진이 한 장 섞여 있었고 그 사진의 뒷면에는 ‘my lover’라고 적혀 있다. 그때 둘은 몇 년전에 서로 약혼한 사이임을 알게 된다. 그 자리에 옆방에서 藤井權兵衛가 나타나서 우선 富永春에게 그때까지 괴롭혀 온 것을 사과하고 다음에 富永春의 父親이 深谷梅二郎에게 쓴 遺言狀을 숨겨 놓았던 곳에서 꺼내 온다. 그 遺言狀에는 深谷梅二郎에게 政治資金으로서 萬엔을 준다는 내용과 딸인 春(하루)는 深谷梅二郎가 아내로 맞아들여도 되고 타처로부터 養子를 맞아들이게 해도 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것을 본 후 國野基와 富永春는 서로에게 두 가지씩 結婚 후의 생활에 관한 조건을 제시하고 둘이 모두 그 조건들을 받아들여서 이제 정말로 약혼을 한다.

雪中梅의 ‘梅’는 原作에서는 國野基(쿠니노 모토이)를 가리킨다.¹¹⁾ 따라서 ‘雪’

11> 末廣重恭, 「雪中梅」(博文堂, 1886) 下卷 p.172, p.182 참조. 本稿에서 ‘原作’이라고 하는 것은 이 版을 가리킨다. 末廣重恭(수에히로 시게야수)가 本名이고 鐵腸(벃쵸우)는 號이다.

은 國野基가 政治思想을 실현하는 데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뜻한다. 原作은 國野基를 주인공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전체로서 政治小説이 되어 있는데, 이 외에 原作이 政治小説임을 斷定할 수 있는 근거는 다음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富永春(토미나가 하루)와 그의 父親이 結婚보다 國野基의 政治活動을 優先하고 있다는 점이다. 富永春의 父親인 富永正左衛門(토미나가 쇼우자에몽)이 쓴 진짜 遺言狀은 深谷梅二郎에게 쓴 것이며, 중요한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拙者ハ貴君ノ大志アツテ國家ニ盡カスル爲メニ資財ノ必要アルヲ知ル因テ資財ノ内金子一万圓地面三ヶ所貴君ニ讓與致シ候春女儀ハ貴君ノ妻ニ致サレ候共他ヨリ養子ヲ取り富永家ヲ相續致サセ候共拙者ニ於テ異存無之 (下p.175)
(나는 내가 큰 뜻을 품고 국가를 위해 진력하는 데에 자금이 필요함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재산 가운데 현금 一萬엔을 세 군데에 나누어서 땅 속에 묻어 놓았으며 그것을 네게 주고자 한다. 딸인 春(하루)는 네가 아내로 삼아도 되고, 타처에서 양자를 맞아들여서 富永(토미나가)의 집안을 상속하게 해도 된다.)

深谷梅二郎가 政治活動을 하는 데에 쓰는 자금으로서 땅 속에 一萬圓을 묻어 놓았다는 내용과 深谷梅二郎는 富永春를 아내로 삼아도 되고 삼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것으로써 富永正左衛門은 딸의 結婚보다 深谷梅二郎의 政治活動을 優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原作에서는 國野基와 富永春가 結婚하기 직전에 서로에게 두 가지씩 조건을 제시한다. 富永春가 國野基에게 제시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 ① 一家を御持ちになりましたも是れまで通りに書生の積りで御勉強になり一大事業を成されるが私の一つの御願で御坐います (下p.179~p.180)
(가정을 가진 후에도 종전대로 자신을 書生이라고 생각해서 공부를 하고 꼭 큰 뜻을 이루어 달라는 것이 제 첫째 부탁입니다.)
- ② 私の譲り受けました遺産だけで此後一家の暮方をつけることが出来ませうから貴君ハ親より差上げました財産を以て國事に奔走する資本に充て有志の人人を御結合なされましたならば親の素志も貫き貴君の御名譽にもならふと思はれます (下p.180)

(제가 물려받은 유산만으로 앞으로의 집안 살림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제 부친께서 주신 돈을 가지고 국가를 위한 일에 분주하는 자금으로 삼아서 많은 有志者들을 결합한다면 제 부친의 바람을 살리게 될 뿐 아니라 당신의 명예가 되기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말에서 富永春가 자신의 結婚生活보다 國野基의 政治活動을 優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는 國野基가 富永春(토미나가 하루)와 結婚을 하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政治理念을 실현시키기 전에는 結婚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한다는 점이다.

國野基는 富永正左衛門이 자신의 딸과 結婚하게 하려고 했을 때에 그것을 싫어했다. ‘顔も氣象も知らぬ人を押し付けて家内にせよと云はるるハ迷惑千萬のこと’(얼굴도 성격도 모르는 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이라고 강요받는 것은 부담스럽기 짝이 없는 일, 下p.167)이라고 생각해서 洋行의 꿈도 養子가 된다는 약속도 모두 집어 치우고 函館(하코다테)에 가 버린다. 그리고 國野基는 결말에서 富永春가 자신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안 뒤에도 ‘縁談のことハ今四五年御見合せ下さる様に願ひます’(結婚은 앞으로 四五년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下p.173)라고 하면서 당장 結婚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는 그 이유를 ‘今日ハ脩業中である’(지금은 아직 修業하고 있는 중이다, 下p.173),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政治理念을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國野基는 끝까지 政治活動을 最優先했다.

셋째는 결말에서 國野基가 一万圓을 얻음으로써 돈이 없어서 政治活動을 제대로 못한다는 政治的인 갈등이 풀린다는 점이다.

以上과 같이 原作은 國野基가 政治理念을 실천으로 옮기려고 하는 과정이 어디까지나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政治小説이라고 할 수 있다.

政治小説이라는 것은 政治主張, 政治批判을 中心으로 하는 小説¹²⁾이며, 政治에 대한 사람들의 熱情에 刺戟을 받아서 생긴 文學¹³⁾이다. 政治小説은 19세기 말의 日本에서는 상당히 人氣가 많았다. 末廣鐵腸는 政治小説 <雪中梅> 및 그 續編인 <花間鶯>을 출판해서 번 돈으로 洋行을 했는데 明治文壇에서 책을 판 돈으로 洋行한 作家는 첫째가 <經國美談>의 作者인 矢野龍溪(야노 류우케이)이고 둘째가 末廣鐵腸였다.¹⁴⁾ 이 두 作家가 모두 政治小説作家라는 것에 주목

12> 柳田泉, 「明治初期の文學思想」 上卷 (東京, 春秋社, 1965), p.189

13> 柳田泉, 위의 책, p.190

하면 당시 日本에서 政治小説이 얼마나 잘 팔렸는지를 알 수 있다. 政治小説이 盛行한 이유로서는 지식인들이 자신이 원하는 바 또는 국민이 원하는 바를 公然히 문학작품으로 만들 수 있었다는 의미에서 아주 획기적인 것이었다는 점과 政治的인 役割뿐만 아니라 理想을 쓰는 文學作品의 探究, 戯作文學에의 批判, 新作文學 出現에의 刺戟이라는 文學的인 役割도 했다는 점¹⁵⁾을 들 수 있다. 政治小説이라는 이름이 붙은 문학작품은 明治十年代(1877年~1886年)의 중반에 생기고 明治三十年代(1897年~1906年)까지 계속되는데,¹⁶⁾ 國會開設(1890年 —— 筆者 註)을 전후로 하여 그 前期가 自由民權的 對內的 改革을 主潮로 함이 그 特徵임에 비해서, 그 後期는 國權伸張的 對外的 進出을 主潮로 하고 있다.¹⁷⁾ 原作 <雪中梅>는 上下篇 모두가 1886년에 출판되었으므로 前期의 작품이 된다. 실제로 거기에 나타나는 政治思想은 國會開設의 준비에 관한 것과 地方議會의 改良에 관한 것이므로 自由民權的 對內的 改革을 主潮로 한 것이다. 末廣鐵腸은 <雪中梅>의 創作意圖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내가 『雪中梅』를 쓴 것은 지금부터 五年前이다. 그 當時 나는 世態에 대해서 깊이 悲憤慷慨하고 있었다. (中略) 이것은 나의 政治論이다. 讀者들이 이것을 보통 人情小説과 同一視하지 않았으면 한다.¹⁸⁾

위의 인용문에 의하면 原作 <雪中梅>는 ‘世態에 대한 悲憤慷慨를 바탕으로 한 政治論’이다. 末廣鐵腸가 그것을 어떻게 小説로서 構成하려고 했는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두 세 명의 有志者가 許多한 艱難辛苦를 무릅쓰고 國會開設에 盡力하고, 마침내 輿論을 일으켜서 세상 形편을 一變시키고, 順序대로 政治社會를 進歩시켜서 勢力이 있는 政黨을 만들어내고, 政府 쪽도 만만의 代세를 갖추어서 1890年을 맞고 古今에 類例없는 卓越한 國會가 設立된다는 內容으로 쓸 작정이다.¹⁹⁾

14> 柳田泉, 「政治小説研究」中卷 (東京, 春秋社, 1968), p.347

15> 柳田泉, 「明治初期の文學思想」上卷 (東京, 春秋社, 1965), p.190

16> 柳田泉, 「明治初期の文學思想」上卷 (東京, 春秋社, 1965), p.190

17> 柳田泉, 「政治小説研究」上卷 (東京, 春秋社, 1967), p.33

18> 末廣鐵腸, 『訂正増補雪中梅』(東京, 嵩山堂, 1890. 5), 序文

19> 末廣鐵腸, 「政事は小説と孰れか難き」, 「朝野新聞」(1887. 1. 20)

여기에 나타나는 ‘順序대로 政治社會를 進歩시켜서’라는 사상은 ‘僕ハ與論に因つて平穩に社會の改革を成就する決心だから前後を顧慮せぬ粗暴の事ハ眞平御免ダ’(나는 여론으로 인해서 평온하게 사회개혁을 성취시키려고 결심했으니까 전후의 상황을 무시한 난폭한 짓은 하기 싫다, 上p.70)라는 國野基(쿠니노 모또이)의 말에 그대로 옮겨져 있다.

創作意圖에 대한 末廣鐵腸의 설명과 그 설명 속에서 그가 쓴 말이 國野基의 말에 그대로 옮겨져 있다는 事實이 端的으로 나타내는 것처럼 末廣鐵腸의 소설은 그의 政治目的으로부터 出發했다.²⁰⁾ 따라서 原作 <雪中梅>는 末廣鐵腸가 자신의 政治主張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手段이었다고 結論 지을 수 있다.

2. 한국개화기의 시대상황과 연애소설 <雪中梅>

翻譯案作 <雪中梅>의 梗概는 다음과 같다.

장매선이 늙은 어머니의 看病을 하고 있다. 어머니는 딸에게 옛날에 父親을 통해서 약혼한 심랑이라는 남자를 더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로 시집 갈 것이냐고 묻는다. 딸은 심랑을 더 기다려 보겠다고 대답한다. 장매선은 어느 날 심랑을 찾으러 독립회관에서 열린 연설회에 간다. 거기서 심랑과 얼굴이 비슷한 사람이 연설하는 것을 보고 혹시나 하고 기대를 걸지만 그의 이름이 리태순이었기 때문에 낙담한다. 늙은 어머니가 죽은 후 장매선은 父親과 의형제의 관계를 맺은 권첩사의 집에 살게 된다. 권첩사는 갓지 못하는 빚 때문에 하상천이라는 法律家를 찾아간다. 하상천은 권첩사에게 장매선과 結婚하게 해주면 謝禮로서 천원을 지불해서 빚 문제를 한숨에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한다. 천원이라는 돈에 눈이 어두워진 권첩사는 장매선의 父親의 遺言狀을 위조하고 그것을 장매선에게 보임으로써 하상천과 結婚하도록 몇 번이고 강요한다. 장매선은 권첩사의 夫人 정씨와 둘이서 북한사에 여행을 갔을 때에 길 위에서 리태순을 만난다. 그때 장매선은 그 사람이 옛날에 장씨 집안의 養子가 될 약속을 한 적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서 더욱 더 궁금해지는데 정씨의 방해를 당해

20> 越智治雄, ‘『雪中梅』의 位相’, “日本近代文學大系” 第2卷, 明治政治小説集 (東京, 角川書店, 1974), p.40

서 더 이상의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게 된다. 끝없이 애 타는 장매선은 경성에 돌아온 후에 리태순 앞으로 확인을 하고 싶으니까 한 번 만나 달라는 편지를 쓴다. 리태순은 장매선의 방을 찾아가서 벽에 자신의 옛날 사진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 왜 이 사진이 여기에 있느냐고 장매선에게 물은 것이 계기가 되어서 두 사람이 서로 옛날에 약혼한 사이임을 알게 된다. 장매선은 리태순에게 그때까지 겪은 고생을 모두 털어놓는다. 그것을 들은 리태순은 ‘남이 자신을 저버려도 자신이 남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제시해서 장매선을 괴롭혀 온 사람들을 모두 용서하자고 제안한다. 장매선은 그 제안에 동의한다. 그리고 둘은 結婚할 날짜를 정하고 헤어진다.

雪中梅의 ‘梅’는 翻案作에서는 장매선을 가리킨다.²¹⁾ 따라서 ‘雪’은 장매선이 結婚을 하는 데에 隨伴하는 방해 요소를 뜻한다. 翻案作은 장매선을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이 女子主人公이 자신의 配匹을 찾아 결국은 結婚에 이르는 이야기가 敘事構成의 中心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이 作品은 하나의 戀愛小說이 되어 있는데, 이 외에 翻案作이 戀愛小說임을 斷定할 수 있는 근거는 다음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장매선과 그의 父親이 오로지 리태순과의 結婚이 성취될 것만을 바라고 있다는 점이다. 장매선의 父親이 쓴 遺言狀은 나타나지 않고 리태순과 장매선이 結婚하기 직전에 서로에게 조건을 제시하는 장면도 없다. 장매선의 父親은 딸에게 심량의 사진을 주면서 ‘이곳 너의 백년언약을 덩흔바심랑이라 나죽은후라도 부디신을직히여 나의 부탁을 저바리지 말나’(p.75)라고 말했고, 장매선 본인은 심량의 사진 밑에 ‘금석갓치무거운 언약이여 죽기를흔흔고 저바리지못흐리로다’(p.74~p.75)라고 적었다. 장매선도 그 父親도 리태순이 제대로 政治活動을 할 수 있게 해 주려는 마음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 오로지 심량과의 結婚이 성취될 것만을 바라고 있다.

둘째는 리태순이 장매선의 父親에게서 딸과 結婚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에 그것을 承諾했고 政治理念을 실현시키기 전에는 結婚은 못 하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리태순은 장매선과의 結婚을 承諾했음에도 불구하고 結婚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걸린 이유를 ‘등한히잇고 다시괴역도 아니흐얏스오니’(p.76)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翻案作 <雪中梅>는 結婚의 약속을 잊은 남자를 애타게 찾아다니는 여자의 고생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여자를 고생시킨 책임은

21> 具然學, 「雪中梅」(滙東書館, 1908) p.67 참조. 本稿에서 ‘翻案作’이라고 하는 것은 이 版을 가리킨다.

남자 쪽에 있는데, 리태순은 그것에 대해서 ‘랑자의 고초격그신일은 모다소성의 불민한 죄로소이다’(p.76)라고 사과를 한다. 政治活動을 優先하는 言動은 리태순에게도 장매선에게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셋째는 리태순이 아무에게서도 돈을 받지 못한 채 結婚을 한 결과 생활비를 버는 데에 급급하게 되어서 계속해 온 政治活動을 그만둘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돈이 없어서 政治活動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政治的인 갈등은 翻案作에서는 풀리지 않는다. 방해 요소가 있어서 풀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작자가 政治的인 갈등의 결말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풀리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을 根據로 한다면 翻案作은 리태순의 政治에 대한 꿈이 挫折되면서 주인공 장매선의 結婚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戀愛小說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면 韓國에서 日本의 政治小說 <雪中梅>가 翻案되게 된 背景은 어떤 것인가? 韓國에서는 開化期에 새로운 小說觀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梁啓超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특히 ‘그의 「飲水室文集」은 우리 나라 人士들에게도 널리 읽혀졌었다.’²²⁾ 「飲水室文集」에서 政治小說에 관해서 언급한 부분으로서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在昔歐洲各國變革之始 其魁儒碩學 仁人志士 往往以其身之所經歷 及胸中所懷 政治之議論 一寄之於小說 於是彼中綴學之子 鬻塾之暇 手之口之下而兵丁而市僧而農氓而工匠而車夫馬卒而婦女而童孺 靡不手之口之 往往每一書出而全國之議論 爲之一變 彼美英德法奧意日本各國政界之日進 則政治小說 爲功最高焉²³⁾

(美國·英國·獨逸·오스트리아·이탈리아 등 歐洲各國 및 日本까지도 變革의 시초에 그 나라들의 碩學과 個人志士들은 자신들의 經歷과 抱負인 政治的 論議를 펼치는 데 모두 소설에 寄託했을 뿐만 아니라, 學生은 물론, 밑으로는 兵士·商人·農民·工人·車夫·馬卒 그리고 婦人·兒童들까지도 愛讀하였으며, 왕왕 한 권의 소설이 出版되는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논의됨으로써 政界의 進歩에 커다란 功績을 갖고 있었다.)²⁴⁾

22> 車相輾, 「中國文學史」(東國文化社, 1958), p.596

23> 梁啓超, 「飲水室文集」上, 教育篇, (上海, 廣智書局, 1903), p.55

24> 李在銑, 「韓國開化期小說研究」(一潮閣, 1972), p.161

이것은 政治思想을 서민에게 전달하는 데에는 소설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는 주장인데, 梁啓超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음과 같은 주장도 하고 있다.

六經不能教 當以小說教之 正史不能入 當以小說入之 語錄不能諭 當而小說諭之 律例不能治 當以小說治之²⁵⁾

(六經도 正史도 語錄도 律例도 그 자체를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소설을 이용한다면 그것들을 가르칠 수 있다.)

아무리 어려운 내용이라도 소설을 통해서라면 가르칠 수 있다고 하는 이 대목은 小說萬能論이며 소설의 實效性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實效性을 전제한 정치 소설은 그때 벌써 日本의 明治 開化 初期에 절대적인 感化力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나라 개화기의 知識人에게는 文藝革新을 주장케 하는 刺戟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러한 결과로 많은 翻譯文學 및 偉人傳記 또는 정치소설의 翻案이 있게 되었’²⁶⁾다. 이것이 日本의 政治小說 <雪中梅>가 韓國語로 翻案되게 된 背景이다. 그리고 翻案作 <雪中梅>가 한글만으로 쓰인 것은 ‘국문소설은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다는 편의성을 지니고 있으며, 많은 사람이 쉽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회적 전파력과 효용적 기능성을 발휘할 수도 있다’²⁷⁾는 점을 活用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에 翻案作이 政治小說이 되지 않고 戀愛小說이 된 이유를 밝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韓國 開化期의 小說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白鐵은 新小說의 主題를 (1) 開化와 自主獨立, (2) 新教育의 力說, (3) 因襲의 批判과 새 道德, (4) 迷信打破와 現實暴露라는 네 가지로 分類했고,²⁸⁾ 李海朝는 小說의 機能이 재미와 영향에 있다고 주장했다.²⁹⁾ 그러나 소설을 政治主張이나 政治宣傳의 手段으로서 利用하자는 주장은 韓國 開化期에는 없었다. 末廣鐵腸처럼 자신의 政治理念을 많은 민중들에게 알린다는 목적으로 소설을 쓴다는 행위 자체가 韓國 開化期에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具然學이 翻案을 하는 과정에서는 原作의 第一目的이었던 政治理念을 전달한다는 요소가 빠지게 된다. 돈과 힘이

25> 梁啓超, 앞의 책, p.55

26> 李在銑, 「韓國開化期小說研究」(一潮閣, 1972), p.162

27> 權寧珉, ‘개화 계몽 시대 서사양식의 장르 분화’, <韓國文化> 17 (서울대학교 韓國文化研究所, 1996. 6.), p.80

28> 白鐵, 「新文學思潮史」(新丘文化社, 1968), p.52~p.65

29> 李海朝, 「花의 血」後記, 『每日申報』(1911. 6. 21)

없는 상태로 政治를 어떻게 개량할 것인가 라는 남자의 갈등이 그 중요성을 잃으면 結婚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여자의 갈등이 작품의 중심이 된다. 翻案作이 장매선이 약혼자를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만나서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戀愛小說이 된 이유는 여기에 있다.

政治小說의 成立要件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翻案作 <雪中梅>가 출판된 1908年이라는 시기에 韓國에서 政治小說이 성립되지 않았던 '결정적 원인은 의회제도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의회제도가 성립되고, 각 정당의 대의사들의 정견발표를 소설의 형식을 통해 드러낸 것이 정치소설인데, 통감이 부임한 한국에서 그 같은 성격의 정치소설은 절대로 가능할 수 없었다.'³⁰⁾ 그러나 政治小說의 必要性을 느끼고 있었던 사람은 있었다. '일본에서의 공부를 통해 이인직은 대의정치제도의 도입과 실시를 꿈꾸었고, 그것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정치소설임을 깨우쳤다. 그러나 귀국한 그의 앞에 놓인 현실은 그러한 대의정치의 실현을 꿈꾸어볼 수조차 없는 상태에 있었다. 다만 일본통치 아래 놓이는 길만이 드러나 보였다. 일본에서 발견한 정치소설이 거의 형성되어 있지 않음을 발견한 이인직의 나아갈 길은 사이비 정치소설 또는 정치소설의 결여 형태로서의 소설유형을 창출하는 것뿐이었다.'³¹⁾ 翻案作 <雪中梅>가 政治小說로서 성립되지 않았던 것도 같은 理由라고 할 수 있다.

30> 김윤식, 정호웅, 「한국소설사」 (예하출판, 1993), p.27

31> 김윤식, 정호웅, 위의 책, p.34~p.35

第3章 <雪中梅>의 구성과 주제의식

1. 판본

原作과 飜案作의 판본을 上篇 第一回부터 下篇 第八回까지 나누어서 비교하면서 그 차이를 指摘해 보면 다음과 같다.

< 上篇 第一回 >

原作은 ‘老母の咳聲コンコンコン’(노파의 기침소리 콜록 콜록, 上p.1)으로 시작되고 이 콘콘콘(콜록 콜록)이라는 기침소리는 이 뒤에서도 빈번히 삽입되는데, 飜案作에는 기침소리가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다. 기침이 나는데도 억지로 말을 계속하려는 노파를 그 딸 富永春(토미나가 하루)는 세 번 말리는데, 이와 같은 행동도 飜案作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 上篇 第二回 >

原作에는 國野基가 비유로서 꺼낸 여행자가 길을 가는 이야기가 直接話法으로 자세하게 나오는데, 飜案作에서는 이 부분이 間接話法으로 처리되고 길이가 상당히 짧아졌다. 그리고 國野基가 政治思想이 退步한 이유 네 가지를 지적하는 부분과 日本이 歐美諸國과 맞겨울 수 있게 될 때까지 각자 분발해야 한다고 말하는 부분은 飜案作에서는 삭제되었다.

< 上篇 第三回 >

原作에서는 戰國策이 모두 漢字로 적혀 있는데 飜案作에서는 모두 한글로 적혀 있다.

< 上篇 第四回 >

原作에서 하숙집 주인인 吝藏(린조우)가 國野基에게로 사지 않겠느냐고 가져온 책들은 振氣篇, 山陽詩稿, 「ユニオンリードル(Union Reader)」第三第四, 「カクケンボス(Quackenbos)」米國史, 英和辭書「ダイヤモンド」(英日辭典「다이아몬드」)³²⁾인데, 이것이 飜案作에서는 ‘덩다산의문집네권과 일어국민독본두

32> 『日本近代文學大系』第2卷, 「明治政治小説集」(東京, 角川書店, 1974), p.356에 다음과

권과 일영자전 (싸이아몬드) 혼권'으로 바뀌었다. 하숙집 주인이 책을 가져오는 동안에 國野基와 리태순이 생각하는 내용은 정반대이다. 國野基가 '碌なものもあるまいが'(볼 만한 것은 없겠지만, 上.p.85)이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었던 데에 비해 리태순은 '한적중의 보던칙이면 도흔칙일듯흐니'(p.26)라고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었다.

< 上篇 第五回 >

原作에는 國野基가 無名氏에게서 받은 편지에 나타나는 '暗投'라는 말을 '卽明珠暗投壯夫按劍'이라는 中國의 故事를 인용해서 경찰관에게 설명하는 장면이 있어서 그의 漢文에 대한 지식을 엿볼 수 있는데, 翻案作에는 그런 장면이 없다.

< 上篇 第六回 >

原作에서는 國野基가 들어간 監房에 이미 네 명의 受刑者가 있고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감옥 생활의 비참함이 묘사되어 있는데, 翻案作에는 리태순 이외의 受刑者가 나타나지 않고 감옥 생활의 비참함도 묘사되지 않았다. 그리고 原作에는 '이 章의 내용은 내가 十年前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목격한 광경과 한 두 명의 친구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참고로 해서 썼다'는 작자의 해설이 있는데, 翻案作에는 없다.

< 上篇 第七回 >

富永春는 箱根湯本(하꼬네유모또)의 福住樓(후꾸수미로우)에서 거문고를 타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지만 장매선은 북한산 북한사에서 소리를 내서 글을 읽고 있었다. 福住樓에서 國野基는 富永春를 만나서 그녀가 三十엔을 보내 주기도 했고 明禁으로 激勵文을 쓴 손수건을 감옥에 差入해 주기도 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리태순은 북한사에서 장매선의 얼굴조차 보지 못했고 詩를 한 번 주고 받는 데에 그쳤다.

같은 설명이 있다.

振氣篇：天皇을 支持하는 憂國志士들이 쓴 和歌와 漢詩를 모은 文集. 1869年.

山陽詩稿：賴山陽(라이상요우)의 詩集으로서는 「山陽詩鈔」(1833年)와 「山陽遺稿」(1841年)가 있으나 「山陽詩稿」라는 詩集은 없다.

「ユニオンリードル」第三第四：Charles Sanders가 편찬한 영어 교과서.
第一부터 第五까지 있다.

「カクケンボス」米國史：George Payn Quackenbos가 편찬한 “History of U.S.A.” (1867年).

英和辭書「ダイヤモンド」：『新刻書目便覽』(1874年)에 <掌中字典 (ダイヤモンド) 岡田伴治 一円六十二錢>이라는 書目이 있다.

< 下篇 第一回 >

原作의 國野基는 富永春가 남기고 간 편지에 ‘지금부터 木賀(키가)에 갈 것인데 당신도 시간이 있으면 木賀(키가)에 오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고 富永春를 만나러 가지만 翻案作의 리태순은 편지에 그런 내용이 없는데도 ‘그부인이 어디로 향햏야간다햏더뇨’라고 묻고 주승에게서 ‘남의댁 부인의 거취는무삼연고로 물으시나닛가’라고 비웃음을 산다.

또한 原作에서는 ‘작자는 전에 湯本(유모또)에서 宮の下(미야노시따)에 가는 도중에 漢詩를 발견했다’고 해서 漢詩가 길게 인용되어 있는데 이것은 翻案作에는 없다.

< 下篇 第二回 >

原作에서는 武田猛(타께다 타께시)가 故鄉인 伊勢(이세)를 떠나고 나서 姫の水(히메노미즈)에서 國野基를 만날 때까지 걸어온 코스가 ‘東海道(토우카이도우)를 걸어와서 그저께 箱根宿(하꼬네쥬쿠)에서 蘆湯(아시노유)를 거쳐서 여기(姫の水)에서 묵고 木賀(키가), 宮の下(미야노시따), 堂島(도우가시따)에 이르기까지 모든 여관을 찾아봐도 …… ’라고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翻案作에서는 문전철이 리태순을 만난 곳의 地名도 나타나지 않거니와 문전철이 걸어온 코스도 설명되어 있지 않다.

< 下篇 第三回 >

原作에서는 田村(타무라)가 ‘요즈음은 新聞이 아주 재미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 國野基가 ‘新聞은 社會의 寒暖計이기 때문에 政治에 대한 사람들의 熱情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지기 마련이고 비록 新聞이 재미없다 하더라도 法에 의해서 그 활동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新聞記者를 탓할 수는 없다’고 대답하는데, 신문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翻案作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 下篇 第四回 >

原作에서는 富永春가 책을 읽다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는 곳에 下女가 茶를 끓여 와서 藤井權兵衛가 부르고 있다는 말을 전하는데, 翻案作에서는 장매선이 눈물을 닦고 있는 곳에 권침사가 들어오고 下女의 仲介가 없다. 그러므로 原作에서는 富永春는 자신의 방을 나가서 객실 앞에 있는 뒷마루에서 藤井權兵衛와 이야기를 하지만 翻案作에서는 장매선은 자신의 방에서 권침사와 이야기를 한다.

< 下篇 第五回 >

原作에는 河岸萍水(카와기시 호우수이)와 松田肇(마쓰다 하지메)가 바둑을 두면서 서로 이기려고 해서 하는 말이 나타나는데 翻案作에는 이러한 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 下篇 第六回 >

原作에는 玉助(타마수께), 梅吉(우메키치)라는 두 명의 기생이 나타나는데, 翻案作에는 玉助에 해당되는 옥도라는 기생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梅吉(우메키치)가 國野基와 정을 통하려고 하는 장면이 해당되는 장면은 翻案作에는 없다.

< 下篇 第七回 >

原作에서는 富永春가 國野基의 집을 찾아가서 ‘올해가 끝나기 전에 結婚 상대자를 정한다는 조건으로 원래 내(富永春)가 가져야 할 돈과 父親의 遺言狀을 되돌려 달라’는 내용의 證書를 이미 藤井權兵衛(후지이 고펜베에)와 교환했다고 報告하고 나서 國野基와 부부의 언약을 맺었다고 藤井權兵衛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부탁한다. 한편 翻案作에는 이것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고 리태순이 장매선의 집을 찾아간다.

< 下篇 第八回 >

原作에서는 國野基가 富永春의 집을 찾아간다. 國野基는 책상 위에 많은 사진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富永春와 함께 열 세 장의 사진을 한 장씩 보면서 이야기를 나눈다. 열 세 장째가 國野基의 옛날 사진이고 그때 두 사람은 서로가 옛날의 약혼자임을 알게 된다. 國野基가 東京에 온 후부터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富永春에게 설명하고 있는 중에 藤井權兵衛가 미닫이문을 열고 들어와서 富永春에게 사과하고 잘못을 보상하는 뜻으로 國野基와 結婚式을 올릴 때에 중매인이 되어 준다고 말한다. 國野基는 앞으로 이루어야 할 일이 있고 당장 저축해 놓은 것도 없으니까 結婚은 四~五年 기다려 달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문제는 藤井權兵衛가 꺼내 온 富永春의 父親이 쓴 진짜 遺言狀으로 인해서 해결된다. 땅 속에 묻어 놓은 萬엔을 國野基에게 政治資金으로서 준다고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 후 國野基와 富永春는 結婚 후의 생활에 대해서

서로 두 가지씩 조건을 제시한 뒤에 정식으로 약혼한다. 그리고 結婚 후에 살 집을 새로 사서 십일월의 結婚式 날을 기다린다.

翻案作에서는 장매선의 방에 도착한 리태순이 자신의 옛날 사진이 벽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서로가 옛날의 약혼자임을 알게 된다. 그리고 장매선이 그때까지 겪어 온 고생을 리태순에게 털어놓는 것이 중심이 되어 있다. 그것을 들은 리태순은 ‘넷말에 헛얏스되 사름은 나를 저바릴지언덩 나는 사름을저바리지 말나헛얏스니’ 하상천도 송군서도 권침사도 모두 용서하자고 말한다. 그 제안을 받아들인 장매선은 시계를 보고 이제 곧 권침사 부부가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오리 이곳에 지체호심이 불가’하다고 리태순에게 말한다. 그리고 ‘태순이 급히 이러 작별홀시 미과를 보니여 덩식으로 혼인을 덩혼 후 택일성례 흠을약조’한다. 翻案作에는 장매선의 父親이 쓴 진짜 遺言狀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리태순에게는 政治資金이 생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結婚 후의 생활비도 생기지 않았다.

2. 소설의 구성

小説構成의 차이로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이야기의 구조의 차이이다. 原作과 翻案作에는 이야기에 구조의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原作 <雪中梅>에서 중심이 되는 이야기는 國野基가 政治思想을 실현하려고 하는 과정이다. 國野基는 1890年の 國會開設 以前에 政權을 담당할 능력이 있는 政黨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1880年代 초에 自由黨과 改進黨이 해산된 뒤에 各地에 작은 政黨이 分立해서 전혀 단결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國野基는 悲憤慷慨한다. 國野基가 앞장을 서서 各地의 政黨을 大同團結시키면 해결할 수 있으나 그에게는 그런 運動을 일으킬 만한 資金이 없다. 이런 國野基를 응원하는 사람이 富永春이다. 감옥에 갇혀 있는 國野基에게 ‘가지 위에 아무리 눈이 쌓여도 계속 버티고 서는 소나무의 모습을 본받으라’는 글³³⁾을 보냄으로써 精神面에서 떠받쳐 주기도 하고, 結婚 조건으로서 ‘父親으로부터 물려받은 遺産을 써서 나는 살림살이를 해결할 테니까 당신은 오로지 政治活動에만 專念하라’는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金錢面에서 힘이 되어 주기도 한다.

33> 雪霜のおもきにたへて男男しくもはるをばまつの猶たてるかな (上p.115)

한편 翻案作에서 중심이 되는 이야기는 장매선이 약혼자를 찾아다니는 과정이다. 장매선의 父親은 심량이라는 별명을 쓰고 있었을 때의 리태순의 사진을 딸에게 건네주면서 ‘이곳 너의 백년언약을 덩헌바심량이라 나죽은후라도 부덕신을 직히여 나의부탁을 저바리지 말나’ (p.75)고 命한다. 그 당시 아직 리태순이라는 本名을 모르는 장매선이 심량을 찾기 위해서 ‘사름만히 모헌연설장마다 좃차단기며 살피 보더니 다행히 독립관 정치연설호는날’(p.42) 심량이 演說하는 것을 발견하지만 ‘성씨가 리씨라호오니 바라던마암이 싸에씨러져’(p.76) 버린다. 장매선은 그 후 권첩사의 夫人 정씨와 함께 문산포에 갔다가 京城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심량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만난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옛날에 장씨 집안의 養子가 될 약속을 한 적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더 궁금해지는데 정씨의 방해로 당해서 자세한 이야기는 나누지 못한다. 장매선은 京城에 돌아온 후 그녀를 아내로 삼기를 원하는 하상천의 陰謀로 인해서 수삼차 역을 당하게 된다. 장매선은 그것을 간신히 견디다가 어느 날 리태순에게 한 번 만나 달라고 편지를 쓴다. 리태순이 장매선의 방을 찾아가는데 벽에 자신의 옛날 사진이 걸려 있어서 놀란다. 그 사진으로 인해서 장매선과 리태순은 서로가 약혼의 상대방임을 확인해서 結婚하기에 이른다.

이와 같이 <雪中梅>의 原作과 翻案作은 이야기의 中心軸이 서로 다르다. 原作에서 作品의 主人公은 國野基이며 남자이다. 이 主人公을 敍事의 中心軸에 놓고 모든 挿話들이 結合되어 있다. 전체적인 이야기 역시 國野基의 政治的 野望과 그 實現過程에서 겪는 고난과 시련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原作 <雪中梅>는 ‘政治活動을 통한 男子의 自己實現’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한편 翻案作 <雪中梅>에서 主人公은 장매선이며 여자이다. 그리고 장매선이 敍事의 中心軸에 놓여 있으며 전체적인 이야기도 장매선의 約婚者찾기와 그것에 隨伴하는 고난으로 엮어져 있다. 그러므로 翻案作 <雪中梅>는 ‘約婚者찾기를 통한 女子의 自己實現’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이야기의 구조 以外의 小說構成上의 特徵으로서 原作에는 ‘發端’이라는 章이 있어서 2040年의 視点에서 1885年의 일을 回想하는 未來記가 되어 있다는 점과 各回의 시작 部分에 그 回의 내용을 요약한 漢文이 있다는 점과 本文 위에 출판사로 인한 作品解説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原作은 末廣鐵腸가 創作動機 속에서 밝혔듯이 그의 政治論이며 政治思想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사람